

교수요목기 초등수학교과서 『셈본』에 관한 연구

조영미¹⁾

이 논문에서는 교수요목기에 발간된 셈본 교과서가 여러 종류임에 주목하고 셈본을 둘러싼 역사적 배경과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셈본교과서는 크게 미군정 시기 셈본 교과서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의 셈본 교과서로 대별될 수 있었다. 두 종류의 셈본은 외형, 체제, 수학 내용 지도 방식 등에서 차이가 났다. 후자는 전자에 비해 한층 발전된 교과서 체계를 갖추었으며, 수학 내용에 대한 설명도 상당히 더 상세하고 친절하였다. 특히 후기 셈본 교과서는, 제1차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이라고 일컬어지는 ‘생활단원학습’을 지향하였다.

주제어: 셈본, 교수요목기, 생활단원학습

I. 서론

셈본은 해방 후부터 제1차 교육과정의 교과서가 나오기 전까지 사용된 초등학교 수학교과서의 이름이다. 제1차 교육과정 이전의 시기를 교수요목기라고 보아 셈본을 교수요목기의 초등 수학교과서라고도 한다. 셈본은 1946년부터 1955년까지 발행되어 그 사용 기간이 9년에 이른다.

그동안 초등 수학교육 변천에 관한 연구가 적지 않았다. 이를테면 특정 수학 내용을 소재로 하여 수학교육과정 변천에 따라 그 제시 방식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살핀 연구이다(송영순, 1999; 김향자, 2000; 송정환, 2001; 최지영, 2002; 임지애, 2003; 김상근, 2008; 이대현, 2010). 그런데 이 연구는 대부분 교수요목기나 셈본 교과서를 다루지 않거나 가볍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 현대 우리나라 초등수학교육의 초기 9년을 담당했던 셈본 교과서를 심도있게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셈본 교과서가 관심을 끌지 못한 이유로는 무엇보다 교수요목기에 대한 평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945년 해방을 맞이했지만 곧장 미군정이 주둔하였다. 이때 만들어진 교수요목은 제1차 교육과정 전까지 법의 효력을 가졌다. 당시 만들어진 교수요목에 대한 평가는 ‘교육과정 편성 체제에 비추어 볼 때 교과목표와 학년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고, 내용 조직에서도 영역별 계통성이 없이 교과별 주제를 나열하는데 불과(남승인 외, 2003)’ 또는 ‘교육과정을 연구할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하였으므로, 광복 이전의 산수과 학습 내용을 답습’(김성준 외, 2014)와 같이 얼마간 부정적이다. 교수요목기에 대한 이런 평가는 셈본 교과서에 고스란히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셈본 교과서는 해방 후 교과서를 급하게 만들

1) 공주교육대학교

기 위해 일체의 것을 번역한 정도의 것으로 평가된다(박한식, 1991). 그러한 평가를 되짚어 보는 움직임이 적었던 것이다.

오늘날은 새로운 교육과정이 마련되고 이어서 교과서가 만들어지면 그 교육과정 동안에는 변동 없이 그 교과서가 사용된다. 이런 관행에 비추어볼 때 교수요목기의 썬본 교과서는 특이한 점을 갖고 있다. 교과서 표지의 이름, 발행자, 인쇄소, 내용 기술 방식 등을 고려하여 썬본 교과서를 다섯 종류로까지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다섯 종류 중에서 앞 시기의 세 종류는 내용면에서 같기 때문에 하나로 묶을 수 있다. 뒤 시기의 두 종류는, 앞 시기의 세 종류와 크게 차이가 나면서, 둘 만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을 수 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썬본 교과서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인 썬본 교과서를 시대적 상황, 교과서에 담긴 내용과 형식 등을 고려하여 전기 썬본 교과서와 후기 썬본 교과서로 구분하고 썬본 교과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교수요목기 시대에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하여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을 정리하였다. 해방 이후의 시간은 일체의 잔재를 청산하고 나라를 세우는 격동기였다.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 판을 마련한 이 시기에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중심으로 여러 굵직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썬본 교과서가 편찬·발행되는 과정의 주요 변곡점을 찾아보았다.

다음으로, 썬본 교과서를 먼저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이어 이를 다시 전기, 후기 썬본 교과서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교과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히 교수요목집에 제시된 곱셈 구구 지도 내용이 전기, 후기 썬본 교과서에 따라 어떻게 달리 지도되었는지를 미시적으로 살펴보았다.

II. 교수요목기의 시대²⁾

1. 미군정과 교수요목집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을 맞았다. 같은 해 9월부터 미군정이 시작되었다. 미군정청의 행정 기구 중 교육을 담당했던 학무국(學務局)은 1945년 9월 16일 조선교육위원회를 구성하였다³⁾. 이 위원회는 자문기관이었지만 교육의 모든 부분의 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여 실질적인 힘을 가졌다. 홍익인간의 교육목적 설정, 6·3·3·4제의 학제 제정 등이 대표적이다.

미군정청 학무국은 1945년 11월 23일에 조선교육심의회⁴⁾를 구성하였다. 모두 10개의 분과 위원회를 갖춘 심의회는 거국적인 교육 개혁 추진 기능을 수행했다. 이 심의회가 맡은 현안 중에는 교과서 검정, 출판·공급 등과 관련된 개혁이 포함되었다. 조선교육심의회가 활동이 끝나갈 무렵인 1946년 2월 21일 미군정청은 교수요목제정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수요목 및 교과와 지도 내용에 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한편 미군정이 들어선지 일 년 안에 학무국은 여섯 차례 개편이 될 정도로 변동이 심하

2) 이 장의 내용은 『한국 편수사 연구(1)(허강 외, 2000)』에 실린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의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 편찬’ (이종국)에서 역사적 사실 중심으로 발췌한 것임을 밝힌다.

3) 이 위원회는 1946년 5월에 폐지되었다.

4) 이 심의회는 1946년 3월 7일 회의 후 폐지되었다.

였는데 최종적으로 1946년 3월 29일에 문교부로 이름이 바뀌면서 승격되었다. 미군정청 문교부는 1946년 9월 1일 국민 학교와 중등학교의 교과편제 및 시간배당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어 1947년 1월 10일에 미군정청 문교부 명으로 ‘각과 교수요목집’을 발표하였다. 이 교수요목집에는 국어, 산수, 사회생활, 이과가 담겼다.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사의 교수요목기가 시작되었다.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한국전쟁 그리고 제1차 교육과정의 제정

3년의 미군정 시기가 끝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9년 12월 31일에는 교육법이 제정되어, 교육의 이념, 목적, 교육기관의 종류와 계통, 각급학교의 교육목적, 교과용도서 등에 대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한 교육의 기본이 만들어졌다.

1950년 4월 29일 대통령령으로 ‘교과용도서 검인정 규정’과 ‘국정교과용도서 편찬 규정’을 공포하였다. 6월 2일에는 문교부령으로 ‘국정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규정’과 ‘교수요목제정심의회’ 규정을 공포하였다. 이로써 교육법의 근본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제정 작업에 착수하고 더불어 교과서를 편찬, 발행할 준비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1951년 6월, 전쟁이 커질 것을 우려한 소련이 유엔에서 휴전을 제의하면서 휴전협상에 들어가게 되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전쟁 중이지만 교육과정 제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와 문교부는 1951년 1월 3일 ‘교과과정연구위원회 규정’을 공포하였다. 또한 전쟁으로 중단된 교육을 전시에 맞도록 전개하기 위하여 1951년 2월 26일 전시 하 ‘교육특별조치요강’을 제정 발표하였고 이어 교사를 위한 ‘전시학습지도요령’도 발표하였다.

1950년 교수요목제정심의회, 1951년 교과과정연구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교육과정을 제정하기 위한 법적 조직은 이미 마련되었다. 1953년 3월 11일 부산에서 ‘제1차 교육과정 제정합동위원회’를 시작으로 교수요목 및 교과서에 대해 다시 논의가 되었다. 여기서 정해진 교수요목에 따라 ‘교과과정연구위원회’에서는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1년여의 작업 끝에 1954년 4월 제1차 교육과정을 공포하게 되었다.

1949년에 교육법이 공포되고 곧 이어 기존의 미군정기의 교수요목을 검토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육과정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이는 미루어졌고 실제로 제1차 교육과정이 마련된 것은 1954년 4월이었던 것이다. 이는 애초의 계획보다 4년 정도 미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셈본 교과서의 개요

1.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이름 ‘셈본’

소학교는 오늘날의 초등학교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 국가에 의해 소학교가 세워진 것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이다. 1895년에 발표된 소학교령을 보면 교과목의 하나로 ‘산술’이 있다. 서양식 수학을 당시 ‘산술(算術)’로 이름 짓고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일제 강점기에도 산술이라는 교과명은 계속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일본제국은 1941년 전전(戰前) 비상 체제로 국민 학교 교육을 이끌면서 산술을 산수(算數)로 바꾸었다(박한식,

1991). 1945년 해방을 맞이할 때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이름은 산수로 대중화되어 있었다.

해방 후 미군정 아래에서 발간된 공업신문은 1946년 9월 24일자로 ‘셈본 교과서 인쇄가 완료되었다’는 기사를 실었다(한국사데이터베이스). 당시 미군정청 학무국에는, 오늘날 ‘우리말 지킴이’로 일컬어지는 최현배가 편수국장으로 있었다. 그는 조선어학회와 함께 교과서에서 일본어를 없애고 교과서명이나 각종 용어들을 한글로 바꾸는 일에 앞장섰다. 1948년 9월 21일 퇴임하기까지 만 3년 동안 그는 ‘한글 첫걸음’을 비롯한 각종 교과서를 50가지 이상 펴냈다. 일제 강점기 ‘산수’는 이 시기에 ‘셈본’이 되었다. 더불어 셈본 교과서에 등장하는 한자나 일본어 용어는 한글로 바뀌게 되었다(정재환, 2012).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교육 기구로 문교부가 들어섰다. 최현배는 1949년 한글학회 이사장, 조선교육심의회 교과서편찬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1951년에는 다시 문교부 편수국장으로 임명되어 1955년까지 일했다(정재환, 2012). 그가 편수국장으로 일하는 동안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는 내내 ‘셈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것이다.

2. 셈본 교과서의 분류

1946년부터 1955년까지 발행된 셈본 교과서를, 표지에 실린 이름, 발행자, 인쇄소, 발행 시기, 담긴 내용 등을 고려하여 <표 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1> 교수요목기에 발간된 셈본 교과서의 종류

구분	교과서명	집중 연도	발행자	발행처	주요 역사
전기	(가) 초등 셈본	1946, 1947	군정청 문교부	조선서적인쇄 주식회사	미군정 시기
	(나) 초등 셈본 (산수공부)	1948, 1949	문교부	조선서적인쇄 주식회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다) 초등 셈본	1949, 1950	문교부	조선서적인쇄 주식회사	교육법 제정
후기	(가) 셈본	1951, 1952	문교부	여러 인쇄소	한국전쟁 발발 이후
	(나) 셈본	1953, 1954, 1955	문교부	대한문교서적 주식회사	

가. 전기 셈본 교과서

전기 (가), (나), (다)는 교과서 본문에 담긴 내용이 거의 똑같다는 점에서 하나로 묶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 교과서는 형식과 시대적 상황에서 갖는 차이점이 약간씩 있는데 다음과 같다.

(가)는 미군정 시기에 만들어진 최초의 셈본 교과서이다. 교과서 표지에 ‘군정청 문교부’라고 적혀 있다. 초등 셈본이 1946년에 처음 발간되고, 앞서 언급한 대로, 교수요목집이 1947년 1월에 나온 것을 고려하면, 이 셈본 교과서는 교수요목집 발표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것이다. 특이한 점은, 교수요목집에는 교과목이 ‘산수’로 되어 있지만 교과서 이름으로는 일찌감치 ‘셈본’이 사용된 점이다.

당시 교과서를 기다리는 교사와 학생들의 형편을 두고, 편수국장인 최현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끓주린 이에게 진수성찬을 먹이겠다고 시간을 오래 끌 것이 아니라, 우선 보리밥에 열무김치라도 빨리 차려 주어야 한다.” 교과서 편찬을 위해 각 학문 분야의 유능한 인물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46년 초에 32명의 학자들이 모여 교과서 편찬 작업을 하였다(박한식, 1991).

그런데 이 셈본의 내용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산수의 수준을 낮추어 학년 간, 학기 간 이동시킨 것으로, 단원명이나 교과서에 수록된 문제까지도 똑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군정청 문교부 1947년 4월 발행인 셈본 6-2과 일본문부성 저작 초등과 산수 6학년 상의 단원명과 내용을 비교하면 1학기 내용이 2학기로 이동되고 그림 등 일부에서만 약간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박한식, 1991).

(나) 초등 셈본(산수 공부) 교과서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후 발행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교육 행정 조직으로 문교부를 두었다. 이 교과서 표지에는 ‘문교부’ 라고 적혀 있다. 내용은 (가)와 거의 동일하다. (다) 초등 셈본 교과서는 (나)에 있던 (산수 공부)라는 제목이 없어진 것에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나)와 같다. 결국 (나)와 (다) 교과서는 내용면에서 (가)와 거의 일치한다. 교과서 표지 그림을 보아도 학년 구분 없이 모두 같았다.

<p>(가) 초등 셈본 1946, 1947</p>	<p>(나) 초등 셈본 (산수 공부) 1948, 1949</p>	<p>(다) 초등 셈본 1949, 1950</p>

[그림 1] 전기 셈본 교과서

요컨대, 미군정 시대 만들어진 전기 셈본 교과서 (가), (나), (다)는, 표지 이름과 발행자에서 차이가 있지만 내용에서는 동일하다. 특히 표지 그림이 수학의 대표적인 교구인 자와 컴퍼스, 그리고 계산 도구인 주판을 담고 있는데 모든 학년에서 동일하다. 교과서 표지 조차도 학년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볼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나. 후기 셈본 교과서

1948년 8월 대한민국에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고 교육법이 1949년 12월 31일 공포되었다. 이듬해인 1950년 문교부는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편찬을 위한 여러 규정을 제정하였다. ‘교과용도서 검인정 규정’, ‘국정교과용도서 편찬 규정’, ‘국정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규정’, ‘교수요목제정심의회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전쟁이 한창인 1951년에도 ‘교과과정연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다(허강 외, 2000).

후기 (가) 썸본 교과서는 한국전쟁 기간에 만들어진 것이다. 발행자는 문교부로 이전과 같은데 인쇄는 일한도서, 동국문화사, 동양정판인쇄사, 민중서관, 삼영사, 합동도서 등 여러 인쇄소에서 발간되었다.

전기 썸본은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에서 발행하였다. 일제 강점기부터 있던 조선서적 인쇄주식회사는 해방된 후 미군정이 접수하였다. 이 인쇄소는 화폐와 교과서를 전담 인쇄하게 되었다(대한매일신보, 1945). 그런데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크게 훼손되었다. 북한군이 이 인쇄소를 접수할 수 있다는 염려로 인해 대파 시킨 것이다(이종국, 2008). 그래서 한국전쟁 중에는 교과서를 전담하는 인쇄소가 없었다. 당시 부산 등지로 피난한 여러 인쇄소에서 교과서를 인쇄하여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와 달리 이 시기는 표지의 그림이 교과서마다 모두 다르다. 산과 들을 배경으로 대화하는 모습, 저울이나 자로 측정하기, 굴렁쇠 굴리기 놀이 등이 실렸다. 해방 이후 새 교육 운동에서는 생활 단원 중심의 수학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다(박한식, 1991). 그러한 경향이 후기 (가) 썸본 교과서 표지에 담긴 것으로 보인다.

후기 (나) 썸본 교과서는 한국전쟁에서 휴전 협정이 한창 이루어지거나 그 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1952년 3월 12일에 설립된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가 교과서 발간을 전담하였다. 이 시기 교과서 표지 그림은 후기 (가)와 유사하다.



[그림 2] 후기 썸본 교과서

5-1, 5-2학기 교과서 표지를 보면, 후기 (가)와 후기 (나)가 같은 소재를 담았는데, 후기 (나)가 더 다듬어지고 세련되어졌다. 후기 (나)에는 천연색 교과서도 등장하였다. 후기 (가)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다듬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후기 썸본 교과서 (가)에서 (나)로의 변화

대한민국에 이승만 정권이 들어선 이후 문교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비록 한국전쟁으로 교육과정 개정이 늦추어지게 되었지만, 학교 현장에서 당장 필요로 하는 교과서 개선 작업을 늦출 수는 없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만들어진 후기 셈본 교과서는 미군정기의 거친 셈본 교과서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한 결과물인 것이다.

IV. 셈본 교과서의 변화 : 2학년을 사례로

오늘날 국내 주요 기관에서 셈본 교과서의 원본을 찾아 볼 수 있다(부록 참조). 전기와 후기 셈본 교과서의 원본 5종류가 모두 남아 있는 학년은 2학년이었다. 따라서 2학년을 사례로 하여 셈본 교과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대상이 된 2학년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표 2> 셈본 2학년 교과서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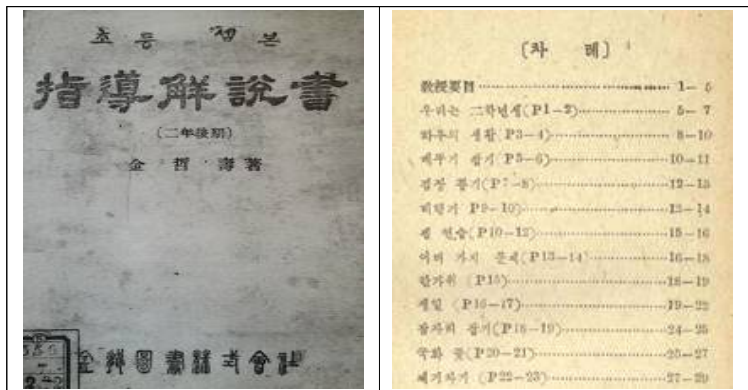
학 기	내용	전기			후기	
		(가)	(나)	(다)	(가)	(나)
2 학 년 1 학 기	표지	초등 셈본 2-1 군정청문교부	초등 셈본 (산수 공부) 2-1 문교부	초등 셈본 2-1 문교부	셈본 2-1	셈본 2-1
	쪽수	48	48	48	61	86
	인쇄자	조선서적인쇄 주식회사	조선서적인쇄 주식회사	조선서적인쇄 주식회사	○○○ ⁵⁾	대한문교서적 주식회사
	발행일	1946. 12. 5	1948. 7. 25	1949. 6. 30	1952. 5. 25	1953. 3. 25
	발행자	군정청문교부	문교부	문교부	문교부	문교부
2 학 년 2 학 기	표지	초등 셈본 2-2 군정청문교부	초등 셈본 (산수 공부) 2-2 문교부	초등 셈본 2-2 문교부	셈본 2-2	셈본 2-2
	쪽수	42	42	42	99	104
	인쇄자	조선서적인쇄 주식회사	조선서적인쇄 주식회사	조선서적인쇄 주식회사	민중서관	대한문교서적 주식회사
	발행일	1947. 5. 25	1948. 12. 15	1949. 11. 25	1952. 1. 25	1953. 8. 25
	발행자	군정청문교부	문교부	문교부	문교부	문교부

<표 2>를 보면 전기 교과서에 비해 후기의 교과서는 쪽수가 많이 늘었다. 2-1학기의 경우, 전기에서 48쪽이던 교과서의 쪽수가 후기에서 각각 61쪽, 86쪽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2-2학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양적 변화는 교과서의 내용 전개에서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전기에서 후기로 교과서의 세부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았다.

5) 이 교과서의 원본이 많이 훼손되어 인쇄소의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다.

1. ‘차례’ 제시 여부

오늘날에는 교과서를 포함하여 책이라고 하면 ‘차례’를 넣는 것이 당연하다. 차례를 통해 내용과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전기 썸본 교과서에는 이 차례가 없다. 차례가 없기 때문에 독자들이 교과서의 내용이나 흐름을 미리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1947년에 ‘초등 썸본 指導解説書’ (김철수)이 발행되었는데, 이 책은 썸본 해설서이다(그림 4). 이 책을 보면 앞부분에 차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 해설서를 참조하여 다음 <표 3>과 같이 차례를 제시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차례 역시, 오늘날 관점에서 부족한 점은, 제목 앞에 번호가 매겨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림 4] 초등썸본 지도해설서 2학년 후기 (김철수, 1947)



[그림 5] 후기 썸본 교과서 2-2학기에 제시된 ‘차례’

후기 (가) 셈본 교과서는 교과서 처음에 차례가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차례에 번호가 매겨져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후기 (나)의 셈본 교과서는 번호가 매겨진 차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교과서에 차례를 만들고 번호를 매기는 제목을 적는 방식은 후기 (나) 교과서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의 표를 참조해 보면, 예컨대, 전기 셈본 2-1 교과서는 48쪽, 후기 셈본 교과서는 각각 61쪽, 86쪽이다. 차례의 주제명을 보면, 전기 셈본 2-1 교과서는 18개, 후기 셈본 교과서는 각각 7, 6개이다. 교과서 쪽수와 주제명의 비를 따져보면, 한 주제 당 할당되어 있는 쪽수가 후기 (나) 교과서가 가장 많다. 이는 후기 셈본 교과서에서 각 단원별로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고자 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표 3> 셈본 교과서에 등장하는 ‘차례’

학기	전기 셈본 (초등 셈본 지도해설서)	후기 셈본	
		(가)	(나)
2 학 년 1 학 기	우리는 二학년생 / 하루의 생활 메뚜기 잡기 / 김장 뽑기 비행기 *셈 연습 *여러 가지 문제 한가위 /생일 /잡자리 잡기 국화꽃 /제기차기 *셈 연습 개천절 *여러 가지 문제 * 셈 연습 *여러 가지 문제 국기 / 재미있는 모양 대소제 / 벧단 날르기 *셈 연습 물통의 물 / 쌀매 타기 성적 조사 * 셈 연습	우리들의 하루 우리 집 소풍 [연습] 한가위 개천절 우리 국군 [연습] 우리 반	1. 즐거운 2학년[연습] 2. 봄의 들 [연습] 3. 나의 일 [연습] 4. 냇가 [연습] 5. 여름 방학 [연습] 6. 편지놀이 [연습]
2 학 년 2 학 기	새학기 /걸음재기 *셈 연습 큰 수 *셈 연습 미터 /상자 접기 그림꼴의 넓이 /단추 九九 五의 단, 九九 二의 단 九九 四의 단 *셈 연습 매달의 날 수 *여러 가지 문제 九九 三의 단 九九 六의 단 *셈 연습 여러 가지 문제 九九 七의 단, 九九 八의 단 九九 九의 단 *셈 연습 동그라미의 수효 * 여러 가지 문제 *셈 연습 줄넘기 /고기 잡기 *셈 연습 *여러 가지 문제	가마니 짜기 겨울 정월 전시회 공던지기 비행장 물병의 들이 전차 놀이 여러 가지 문제 고기잡이	1. 운동회 [연습] 2. 소풍 [연습] 3. 동물원 [연습] 4. 과녁 맞추기 [연습] 5. 장사놀이 [연습] 6. 정월 [연습] 7. 생일 [연습] 8. 산수 공부

2. 본문에 등장하는 생활 소재

샘본 교과서에는 전반적으로 생활에 관련된 장면이나 용어들을 많이 등장한다. 특히 후기 샘본은 단원명에서 이를 직접 드러냈다. 생활 소재는 크게 집안일 돕기, 학교생활, 아이들의 자연 놀이로 구분해 볼 수 있다. 2-1학기 단원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림 6] 샘본 교과서의 생활 장면

먼저 전기 샘본 교과서에는 생활과 생활 사이의 연결성이 잘 드러나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즉, 생활 A 다음에 생활 B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맥락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 또한 내용 전개에 있어 기승전결 등이 없어, 독자가 내용이나 체계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번거롭고 힘든 편이다.

이에 대해 후기 (가)와 (나)는 단원에서 등장한 생활 장면들이 단원의 제목 아래 비교적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통일된 느낌을 준다. 실제로 1953년 샘본 2-1 교과서는 뒷부분에 ‘지도하시는 분에게’ 라는 제목의 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로부터 생활 단원 학습을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생활환경에서 즐겨 노는 생활을 하는 데에 필연적으로 생기고 부딪혀 오는 수량적인 사항을 수량의 면에서 판단하고 처리하여 가는 기초적인 것을 지도하여, 수량 생활을 더욱 더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략] 저학년 학생은 수 개념이 미분화 상태로서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학년의 발달 정도에 따라 추상적, 이론적인 사고(思考)를 피하고, 작업과 직관을 통하여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산도 원리와 방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 사항에서 도입하여 지도하여야 합니다. 각 단원의 제시, 교재의 배열은 지도 단계에 맞추어서 계절에 따른 생활놀이를 들었으나, 학생들의 이해와 기능 정도를 고려하여 그들의 생활환경에 적절한 것을 취하여 풍부한 학습 내용으로 지도해야 합니다(문교부, 1953).

한편 후기 (가) 교과서는 한국전쟁 중에 만들어진 교과서로서 생활 장면으로 ‘군인 가족과 유가족에게 쌀 보내기’, ‘부상 군인 댁 일 돕기’, ‘제트기’, ‘탱크’ 등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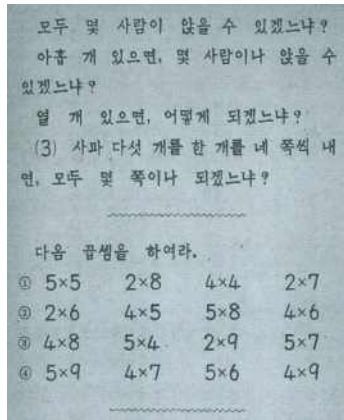
에 관련된 내용이 생활 장면으로 다수 등장한다. 이에 대해 후기 (나) 교과서에서는 전쟁 관련 소재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아 이 시기 교과서 저자들이 전쟁이 가져온 시대적 아픔을 상기하게 하는 장면을 아이들에게 덜 제시하려고 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는 아이들의 동심을 보호하려는 배려로 생각된다.

<표 4> 셈본 교과서에 등장하는 생활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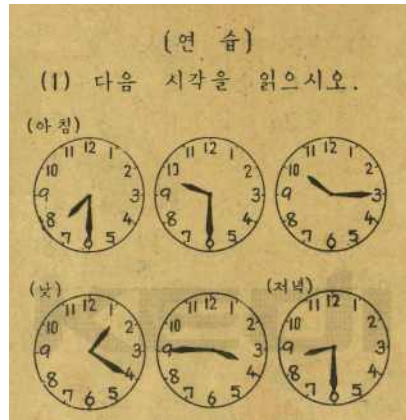
학기	전기 셈본	후기 셈본	
		(가)	(나)
2학년 1학기	학교 가는 길, 학교 시작 시각, 등교하는 시각, 배뚜기 잡기, 밭에서 무나 배추 뽑기, 날아가는 비행기, 개울에서 고기, 잡기, 논에서 새 쫓기, 고추 따기 한가위 밤줍기, 반 동무들의 생일 조사, 잡자리 잡기, 국화꽃 세기, 제기차기, 개천절, 만세 부르기, 국기 그리기, 원죽(소풍) 가는 길 물 먹기, 타작, 달걀 꾸러미, 줄 뛰기, 돌지뿔(피구), 학교 청소하기 벗단 나르기, 물통에 물 담기, 썰매타기	· 우리들의 하루 동무들과 아침 운동, 닭 돌보기, 등교하기, 학교 일과표, 학교 청소, 하루의 생활, 달걀 모이기, 김장밭에서 배추와 무 묶기, 이웃집 아이와 셈 공부하기 · 소풍 출발, 국군이 탄 추력(트럭) 만남 , 언덕에서 놀기, 도토리 줍기, 병정놀이 , 버섯 따기, 날아가는 제트기 , 군인 가족과 유가족에서 쌀 보내기 , 군인 유가족 음악회 · 한가위 추석 차례 지내러 큰 아버지댁 감, 친척들과 만남, 할아버지 산소에 감, 저녁에 달 구경, 달 모양 그리기 · 개천절 개천절 날 국기 달기, 대한민국 만세 부르기 , 태극기 그리기 · 우리 국군 군대 견학 가기, 나무 그늘 밑에서 6·25사변 이야기 듣기 , 탱크 수 구하기 , 다른 분대장의 말 씀 , ‘국군 아저씨 만세 부르기’ · 우리 반 의중계 공부하는 반 동무 축하해주기, 생일 달 조사표 만들기, 운동장 청소하기, 부상 군인 댁 일 돕기 , 벗단 나르기	1. 즐거운 2학년 학교에 감, 새 책과 공책, 새로운 연필, 한 주일 할 일 적기, 1학년에게 학예회 보여 줌 2. 봄의 들 동무들과 들놀이, 꽃 꺾기, 5월 5일 어린이날, 생일 축하회, 동무들의 생일달 조사 3. 나의 일 저녁밥 먹고 아버지와 밭에 가서 모종 심기, 닭과 병아리 돌보기 4. 냇가 냇가에서 물고기 잡고 벌레 관찰하기, 물병에 물 담기, 냇가에서 바둑돌 줍기 5. 여름 방학 여름 방학 하루 시간표 만들기, 나팔꽃 수 헤아리기 6. 편지놀이 편지놀이 할 우체통, 엽서, 우표, 봉투, 편지종이, 돈 만들기, 실제로 편지놀이 하기

3. ‘연습’ 단계의 제시

오늘날 수학 교과서는 크게 개념, 기능, 원리 등을 배우는 ‘본문’ 단계와, 다음으로 그것을 숙달하거나 심화하는 ‘연습’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후기 (나) 썸본에는 매 단원 끝에 [연습]이 있다. 이에 대해 후기 (가) 썸본은 [연습]이 없는 곳이 많으며, [연습]이 나오는 곳도 규칙적이지 않다. 전기 썸본 교과서의 경우에는 가르치는 내용으로 ‘셈 연습, 여러 가지 문제’ 등이 있긴 하지만, 교과서 상에 ‘연습’ 단계나 ‘셈 연습’, ‘여러 가지 문제’ 단계가 공식화 되어 있지 않다. 본문에 하나로 셈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런 변화를 보았을 때, ‘본문’ 과 ‘연습’ 이라는 단계가 담긴 교과서 구성 체계는 후기 (가) 단계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여 (나) 썸본 교과서 때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九九 四의 단’과 ‘셈 연습’ 지도 장면 (전기 썸본 2-2)



[그림 8] ‘연습’이 제시된 장면 (후기 썸본 2-1)

4. 수학 내용 지도의 변화 : 2-2학기 ‘곱셈 구구’ 를 사례로

산수와 교수요목집에 따르면, 2학년에서 승산구구(乘算九九), 즉 곱셈구구를 지도하며 하위 내용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군정청 문교부, 1947). 이 내용은 썸본 교과서 2-2학기에서 다루어졌는데 그 지도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

(1) 5의 段	(2) 二의 段	(3) 四의 段	(4) 練習
(5) 三의 段	(6) 六의 段	(7) 練習	(8) 七의 段
(9) 八의 段	(10) 九의 段	(11) 練習	(12) 總括 練習

첫째, 서술된 문장을 보면, 문장을 마치는 단어에서 차이가 있다. 전기는 물론 후기 (가) 교과서까지도 “몇 개냐?”, “몇 갑절이냐?”, “전시회를 하였다.”, “붙일 수 있다” 와 같이 낮춤말을 썼다. 그런데 후기 (나) 교과서는 “일요일입니다”, “구경을 갔습니다.” 와 같이 높임말을 썼다. 이를 두고 볼 때, 초등학교 수학교과서에 높임말을 쓰는 관례는 1953년 교과서 이후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뀐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점기에 어린이운동을 벌였던 방정환은 어린이에게 놀이말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며 나라의 기둥이므로 정신이 바르게 자라도록 하고 부드럽게 대해 줄 것을 바랐던 것이다(안경식, 1994).



전기 셈본

후기 셈본 (가)

후기 셈본 (나)

[그림 9] 셈본 교과서의 도입 장면

둘째, 개념이나 원리를 설명할 때 생활 소재의 쓰임에 차이가 있었다. 전기 셈본 교과서에는 곱셈구구를 설명하는 장면에서 단추, 손, 강아지, 비행기, 유리, 운동장에 일렬로 선 학생들, 종이로 공 만들기, 야구선수 등이 등장한다. 이 소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구구단에서 필요로 하는 숫자, 이를테면 2단은 2, 3단은 3 등과 같은 숫자를 위해 보조적인 수단으로 등장한다.

이에 대해 후기 셈본은 단원에서 중심 생활 소재를 ‘단원명’으로 정하고 그 단원 안에서 등장하는 하위 소재들을 중심 생활 소재와 연결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후기 (가) ‘전시회’ 단원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학을 하고 나서 겨울방학 동안에 집에서 만든 그림 등으로 전시회를 연다. 벽에다 그림을 붙이면서 5단이 설명된다. 영길이는 5단 구구를 카드에 써서 공부한다. 이를 본 다른 친구들도 이와 같은 카드를 만들어 공부하기로 한다. 숙이네 분단에서는 책상을 2개씩 맞대어서 일기장이며 학습장을 늘어놓을 자리를 만들기로 한다. 여기서 2단이 등장한다. 대식이네 분단에서는 책상을 4개씩 맞붙여 놓고, 공작으로 색종이 접은 것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만든 것을 늘어놓을 자리를 만들기로 한다. 이 장면에 이어 4단이 나온다.

이는 전시회 단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이다. 당시 저자들이 생활 장면에서 수학을 지도하려는 의도를 구현하고자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기 셈본과의 큰 차이점이다.

생활 소재를 다룬다는 면에서 후기 (나)는 후기 (가)와 유사하다. 그렇지만 전개된 이야

기를 볼 때 후기 (나) 교과서가 좀 더 다듬어진 느낌이다. 예를 들어 ‘3. 동물원’에서 처음 곱셈구구에 관한 지도가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이야기의 전개는 대략 다음과 같다. 후기 (가) 교과서 ‘전시회’에 비해 후기 (나) 교과서의 ‘동물원’은 아이들이 좀 더 궁금해 할법한 소재를 다룬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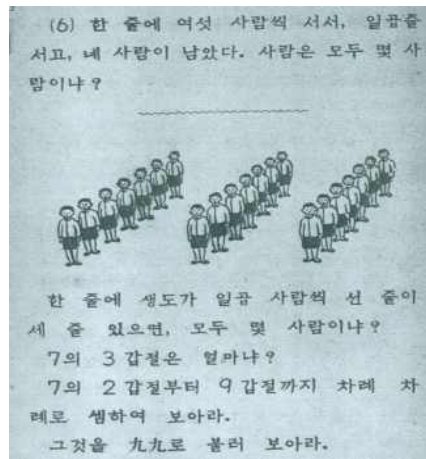
일요일에 철수는 아버지와 동무 3 사람이 동물원 구경을 갔다. 동물의 표 값이 5원이다. 여러 명의 표 값을 계산하면서 이로부터 곱셈과 5단 구구로 이어진다. 동물원의 토끼장에 토끼가 2마리씩 있다. 풀을 잘 먹는 토끼들의 수를 세었다. 이로부터 2단이 나온다. 잔디밭에서 점심을 먹는다. 아버지가 과자를 사다주셨는데 한 봉지에 과자가 4개씩 들어있다. 이제 4단이 지도된다. 아버지는 점심을 드시면서 과자를 세는 것도 구구를 쓰면 빨리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해주신다.

셋째,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전기 썸본은 각 내용에 대해 원리 등 상세한 설명이 거의 없다. 심지어 마지막 ‘차례로 九九로 불러보기’에 5단의 전체, 즉 $5 \times 1 = 5$ 부터 $5 \times 9 = 45$ 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아래 내용을 전개하는 데 3쪽으로 충분했다.

- ‘갑절’이라는 말을 익힘.
- 손 모양 그림을 제시.
- 5의 6갑절 하는 것을 “ 5×6 ”이라고 쓰고 “5 곱하기 6”이라고 읽음
- 5×6 이 30이 되는 것을 “5 곱하기 6은 30”이라고 읽음
- 5×7 이 35가 되는 것을 식으로 써봄
- 5의 2갑절부터 9갑절까지 차례차례 셈하기
- 차례로 九九로 불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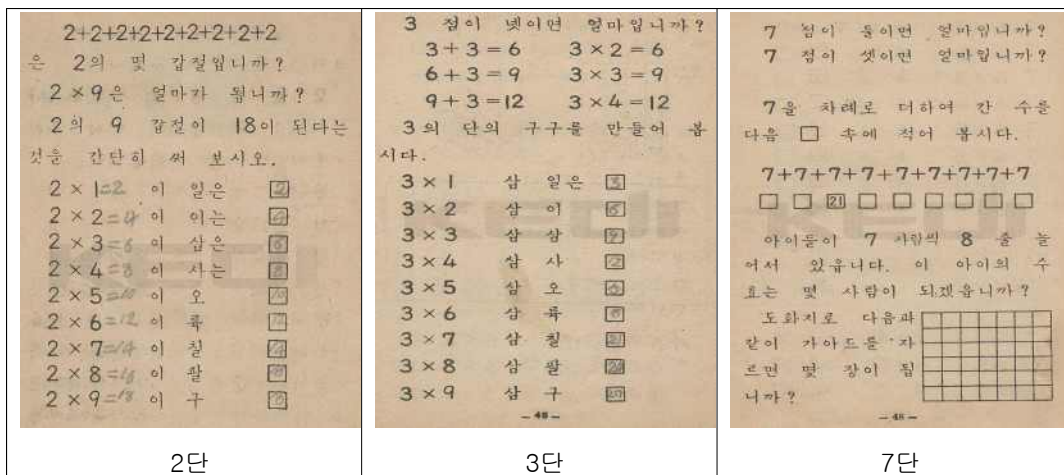
이에 대해 후기 (가) 썸본은 동수누가로 곱셈 개념 도입, 갑절 용어 사용법, 곱셈 표현과 읽기, 구구를 외우고 있을 때 편리함, 구구라는 용어 도입, 5단 구구 전체 제시 등으로 그 용어나 원리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친절하다. 이 내용이 전개되는데 5쪽이 할당되었다. 후기 (나) 교과서는 수학 내용 면에서는 후기 (가)와 매우 유사하다. 그럼에도 6쪽이 들었는데 이는 동물원 관련 삽화들이 여러 쪽에서 등장하고 또한 높임말을 써서 문장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넷째, 교수요목집에 제시된 순서대로, 모든 썸본 교과서에서 5단 \Rightarrow 2단 \Rightarrow 4단 \Rightarrow 3단 \Rightarrow 6단 \Rightarrow 7단 \Rightarrow 8단 \Rightarrow 9단 순서로 지도하였다. 그런데 순서는 똑같지만 이전 단과 이후 단에 변화를 두는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먼저 전기 썸본은 각 단마다 지도하는 방식이 동일하다. 예를 들어 7단을 보면 ‘그림을 보여주고 7의 3 갑절 계산하기, 7의 2 갑절부터 9 갑절까지 차례로 셈하기, 그것을 九九로 불러보기’라는 순서로 지도한다. 모든 단이 이 방식으로 똑같이 지도되었다.



[그림 10] 전기 셈본 교과서 2-2학기

이에 대해 후기 셈본에서 5단 ⇒ 2단 ⇒ 4단 ⇒ 3단 ⇒ 6단 ⇒ 7단 ⇒ 8단 ⇒ 9단 순서로 지도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각 단에서 지도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5단 ⇒ 2단 ⇒ 4단의 방식이 같고, 3단 ⇒ 6단이 같고, 7단 ⇒ 8단 ⇒ 9단이 같다. 단별 지도 방식에 차이를 둬으로써 지도의 변화를 꾀한 것이다.



[그림 11] 후기 셈본 교과서의 곱셈 구구 지도

V. 요약 및 결론

셈본은 1946년부터 1955년까지 사용된 초등 수학 교과서의 이름이다. 먼저 ‘셈본’ 이라는 교과서 이름이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보았다. 해방 후 우리말을 되찾게 되자,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말 도로 찾기 운동과 같이, 우리말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다. 최현배는 미군정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연이어 편수국장을 지냈는

데, 그는 조선어학회 회원으로써 그 움직임을 주도하였다. 실제로 그는 해방 이후 교과서 편찬 작업에 참여하여 50여권을 발간했으며, 일본말에서 벗어난 교과서 이름을 여럿 지었다. 일제 강점기 ‘산수’를 바꾸어 셈본이라고 한 것도 같은 선상에 있다.

다음으로, 셈본 교과서를 표지, 연도, 발행자, 인쇄소 등에 따라 다섯 종류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교과서 내용 전개에 따라 전기 셈본과 후기 셈본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전기 셈본 교과서는 미군정기 때 만들어진 것이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미군정기 3년을 지냈다. 미군정 문교부는 1947년 교수요목집을 발간했으며, 셈본이라는 이름의 교과서는 1946년 처음 만들어졌다. 이 셈본 교과서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도 내용에 변동이 거의 없이 1950년도까지 사용된다.

후기 셈본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52년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어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 방향에 따라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해 법적 기구들을 만들어 가던 중에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법 개정해 해당하는 교육과정 개정은 미루어졌다. 하지만 교과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그 어려운 시기에 계속되었고 실제로 교과서는 상당히 개정된 형태로 발행되었다. 교육과정 개정은 못하더라도 그 틀 안에서 교과서를 개선할 수는 있는 것이다. 교사나 아이들에게 교육과정은 먼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교과서는 당장 필요한 것이다.

전기 셈본과 후기 셈본은 모두 교수요목집의 지침에 따라 수학 내용을 담고 있지만 둘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먼저 교과서 구성 체제로 보면, 차례나 연습의 코너 명 관련하여 전기 셈본은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후기 셈본은 제시하고 있다. 둘째, 집안 일 돕기, 학교생활, 자연과 그 안에서의 놀이 등으로 아이들 생활 소재가 주로 쓰인다는 점에서 전기, 후기 모두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생활 소재를 한 단원에서 쓰는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전기는 가르치고자 하는 수학 내용을 위해 생활 소재를 쓰고 있는 것이라면, 후기 셈본은 제 1차 교육과정에서 내세운 생활 단원 학습의 취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생활 소재를 쓰고 있다. 이는 후기 셈본에 이미 1차 교육과정의 생활 단원 학습이 내재해 있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2학년 곱셈구구 내용을 소재로 하여, 수학 내용을 지도하는 방식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교과서 쪽수에서 차이가 났다. 전기는 50쪽 아래인데 후기 셈본은 그 두 배에서 세 배까지 늘었다. 같은 내용을 지도하는데 들인 쪽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용이 상세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둘째, 교과서 서술 문장을 보면 전기 셈본의 낮춤말이 후기 셈본에서는 높임말로 변하였다. 셋째, 곱셈구구에서 2단, 3단 등 각 단을 지도하는 방식에서 전기 셈본은 간단한 틀을 모든 단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해 후기 셈본은 5단에서 시작해 9단으로 가기까지 다른 패턴으로 지도하여 변화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용어나 개념 설명에서도 전기보다 후기 셈본 교과서가 상세하고 정확하고 섬세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에 소학교가 세워지고 산술이 아이들에게 본격 가르쳐지기 시작한 지 120여 년 정도 되었다. 초기 수학교육의 모습을 밝히는 것은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내다보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도서관에 소장된 고문서 자료가 늘었고 또한 온라인으로 원문 열람이 가능한 자료들도 상당해진 상황이다.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우리나라 초등수학교육이 지나온 길을 재조명하는 연구가 활발해지길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강완 (2000). 수학 교과서에 나타난 계산 지도 방법의 변화 : 두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4, 21-37.
- 김상근 (2008).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나타난 곱셈 지도 방법에 대한 분석 : 곱셈 기초부터 곱셈구구 지도까지**.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준 외 (2014). **초등수학교육론**. 동명사.
- 김철수 (1947). **초등셈본지도해설서**. 금릉도서문구.
- 김향자 (2000). **한국 초등 수학교육의 변천과 전망**.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승인 외 (2003). **초등교사 교육을 위한 수학 교과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인적자원부. 교사교육프로그램개발과제 2003-9-3.
- 박한식 (1991). **한국수학교육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송영순 (1999).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정환 (2001).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나타난 수직과 평행 지도 방법에 대한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경식 (1994). **소파 방정환의 아동교육 운동과 사상**. 학지사.
- 이대현 (2010).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나타난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지도 방법에 대한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국 (2008)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임지애 (2003). **초등학교 수학교과서에 나타난 통계그래프 지도 방법에 대한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재환 (2012). **해방 후 조선어학회·한글학회 활동 연구(1945~1957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영미 (2012). 제1차 생활 단원 중심 초등학교 수학교과서 재조명 연구 :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16(1) 167-183.
- 최지영 (2002).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나타난 약수와 배수 지도방법에 대한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강 외 (2000). **한국 편수사 연구(I)**.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 2000-4.
- <http://db.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Abstract>

A Study on Mathematics Textbook ‘Saembon’

Cho, Youngmi⁶⁾

‘Saembon’ was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 in the Period of Syllabus in Korea. First I classified Saembons in five groups. And then I regrouped them into two kinds. One kinds were published under U.S. Army Military Government, and other kinds were made under Republic of Koera. Two kinds of Saembon were very different in several aspects. I showed how they were different through real examples. Finally I tried to explain that Saembons under Republic of Koera were better than Saembons under U.S. Army Military Government.

Key words: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 Saembon, period of syllabus

논문접수: 2017. 07. 15

논문심사: 2017. 08. 06

게재확정: 2017. 08. 23

6) ymcho@giue.ac.kr

[부록] 셈본 교과서의 종류

이름	발행자	인쇄	연도	소장처
(초등)셈본 1-1	군정청문교부	조선서적인쇄	1947	한국교육개발원
(초등)셈본 1-2	군정청문교부	조선서적인쇄	1947	국립중앙도서관
(초등)셈본 2-1	군정청문교부	조선서적인쇄	1946	국립중앙도서관
(초등)셈본 2-2	군정청문교부	조선서적인쇄	1947	국립중앙도서관
(초등)셈본 3-1	군정청문교부	조선서적인쇄	1946	국립중앙도서관
(초등)셈본 3-2	군정청문교부	조선서적인쇄	1947	국립중앙도서관
(초등)셈본 4-2	군정청문교부	조선서적인쇄	1947	한국교육개발원
(초등)셈본 5-2	군정청문교부	조선서적인쇄	1947	국립중앙도서관
(초등)셈본 6-1	군정청문교부	조선서적인쇄	1946	국립중앙도서관
(초등)셈본 6-2	군정청문교부	조선서적인쇄	1947	한국교육개발원
(초등)셈본: 산수공부.1-2	문교부	조선서적인쇄	1949	국립중앙도서관
(초등)셈본: 산수공부.2-1	문교부	조선서적인쇄	1948	국립중앙도서관
(초등)셈본: 산수공부.2-2	문교부	조선서적인쇄	1948	국립중앙도서관
(초등)셈본: 산수공부.3-2	문교부	조선서적인쇄	1948	국립중앙도서관
(초등)셈본: 산수공부.4-1	문교부	조선서적인쇄	1947	한국교육개발원
(초등)셈본: 산수공부.4-1	문교부	조선서적인쇄	1948	국립중앙도서관
(초등)셈본: 산수공부.4-2	문교부	조선서적인쇄	1949	국립중앙도서관
(초등)셈본: 산수공부.5-1	문교부	조선서적인쇄	1948	국립중앙도서관
(초등)셈본: 산수공부.5-2	문교부	조선서적인쇄	1949	국립중앙도서관
(초등)셈본: 산수공부.6-1	문교부	조선서적인쇄	1948	국립중앙도서관
(초등)셈본.1-2	문교부	조선서적인쇄	1949	국립중앙도서관
(초등)셈본.2-1	문교부	조선서적인쇄	1949	국립중앙도서관
(초등)셈본.2-2	문교부	조선서적인쇄	1949	국립중앙도서관
(초등)셈본.3-1	문교부	조선서적인쇄	1949	국립중앙도서관
(초등)셈본.4-2	문교부	조선서적인쇄	1950	한국교육개발원
(초등)셈본.5-1	문교부	조선서적인쇄	1949	국립중앙도서관
(초등)셈본.5-2	문교부	조선서적인쇄	1950	국립중앙도서관
(초등)셈본.6-1	문교부	조선서적인쇄	1949	국립중앙도서관
(초등)셈본.6-2	문교부	조선서적인쇄	1949	국립중앙도서관
셈본1-1	문교부	동양정판인쇄사	1952	한국교육개발원
셈본1-2	문교부	자유인쇄공사	1952	국립중앙도서관
셈본2-2	문교부	민중서관	1952	한국교육개발원
셈본3-1	문교부	삼영사	1952	한국교육개발원
셈본4-1	문교부	일한도서	1951	한국교육개발원
셈본5-1	문교부	동국문화사	1951	한국교육개발원
셈본5-2	문교부	합동도서	1952	한국교육개발원
셈본6-1	문교부	동국문화사	1951	한국교육개발원
셈본6-2	문교부	합동도서	1952	한국교육개발원
셈본1-1	문교부	대한문교서적	1953	한국교육개발원
셈본2-1	문교부	대한문교서적	1953	한국교육개발원
셈본2-2	문교부	대한문교서적	1953	한국교육개발원
셈본3-1	문교부	대한문교서적	1954	한국교육개발원
셈본3-2	문교부	대한문교서적	1952	한국교육개발원
셈본3-2	문교부	대한문교서적	1954	한국교육개발원
셈본4-1	문교부	대한문교서적	1953	한국교육개발원
셈본4-2	문교부	대한문교서적	1952	한국교육개발원
셈본4-2	문교부	대한문교서적	1953	한국교육개발원
셈본4-2	문교부	대한문교서적	1955	한국교육개발원
셈본5-1	문교부	대한문교서적	1953	국립중앙도서관
셈본5-1	문교부	대한문교서적	1954	한국교육개발원
셈본5-2	문교부	대한문교서적	1953	한국교육개발원
셈본5-2	문교부	대한문교서적	1955	한국교육개발원
셈본6-1	문교부	대한문교서적	1953	국립중앙도서관
셈본6-1	문교부	대한문교서적	1954	한국교육개발원
셈본6-2	문교부	대한문교서적	1953	한국교육개발원